

중규모 3당 탄생 vs 합의이혼... 시나리오 무성

국민의당 통합 찬반 투표 돌입

합당시 50석에 중도층 흡수 내년 지방선거서 돌풍 기대 반대파 무효소송·탈당 가능성 부결시 安사퇴후 리더십 혼란

국민의당과 안철수 당 대표의 운명을 동시에 결정지을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 전(全)당원투표가 27일 나흘간의 일정으로 돌입했다.

투표 결과에 따라 당의 진로가 극단적으로 갈리는데다 안 대표에 대한 재신임도 연재돼 있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투표 이후의 다양한 '시나리오'도 언급되고 있다.

통합 찬성 의견이 많을 경우 국민의당은 자연스럽게 바른정당과의 합당 수순으로 가겠지만 이 과정에서 호남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반대파의 반발이 터져 나오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가능성은 낮지만 이번 투표에서 통합안이 부결될 경우 안 대표의 사퇴로 연결되면서 국민의당은 또다시 리더십 혼란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안 통과시... "50석 정당" vs "내홍 본격화" = 31일 투표 결과 발표에서 통합안 통과가 확정될 경우, 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일사불란하게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 관계자는 "준비기간으로는 한 달을 잡고 있지만, 이보다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다"며 "내년 1월 중순이나 중하순에는 임시전당대회를 열고 바른정당과의 당대 통합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안 대표의 경우 통합 이후에는 '백의종군'을 선언했으므로 통합정당에서는 새로



安-劉, 분위기 '훈훈'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정당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초청으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운 지도부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계산하면 50석(국민의당 39석, 바른정당 11석)의 중규모 3당이 탄생하는 것"이라며 "또 중도 지지층을 흡수하는 효과도 있어 6월 지방선거에서 적잖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투표 결과 발표 이후 통합 반대파들의 반발로 당이 쪼개지기 직전의 내용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무엇보다 전당원투표에 반대하는 통합반대파 측은 이번 투표에 의결 정족수가 없다는 점을 들며 투표율이 33%에 미달할 경우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표명도 서슴치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안 대표를 지지하는 소수의 당원들이 참여한 투표를 가지고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을 용인할 수 없다는 논리다.

통합 반대파인 박주현 의원은 이날 최고 위원회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투표 결과가 나오더라도 무효소송이 제기될 것이

며, 당은 계속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위한 전당대회가 '폭력전대'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며, 가능성은 적지만 불미스러운 사태로 전대에서 합당안 의결이 무산될 수도 있다.

통합 확정 전후로는 '합의이혼' 형태의 결별도 예상된다.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 반대파들이 전당대회 전후로 집단 탈당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통합정당은 국민의당의 기존 의석수(39석)보다 작은 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호남의원들의 집단탈당과 바른정당 일부위원의 자유한국당 복귀 가능성 때문이다.

통합 반대파 비례대표 의원들의 경우 의원이 상실될 수 있어 당을 떠나지 못하지만, 만일 '합의이혼' 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안 대표 측에서 이들을 '제명' 시키는 방식으로 탈당을 용인해줄 가능성도 있

다. 집단 탈당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대파 의원들의 개별 탈당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통합안 부결시, 安 사퇴 후 리더십 혼란 = 31일 전당원투표 결과 발표에서 통합 찬성보다 반대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날 경우, 안 대표 중심의 현 지도부는 즉각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가 이번 전당원투표를 제안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대표직을 걸었기 때문이다. 안 대표의 사퇴 후에는 국민의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도통합론'을 지지하던 안 대표 측 세력이 당내 영향력을 상실하면서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지강파'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당의 진로 역시 '중도'보다는 '개혁'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원내 협상에서도 각종 개혁입법에서 민주당과의 공조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개헌특위에 막힌 12월 국회

한국당 동시투표 반대 고수 점점 못찾아

12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계속하면서 연말을 빈손으로 넘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여야는 27일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접촉을 시도했지만, 특별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파행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국회 개헌특위 시한 연장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2월 말까지 결론 도출'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여야 모두 감사위원장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해를 넘겨 묵히기는 부담인 데다, 전기요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등 일부 일몰법의

시한 연장도 시기를 놓칠 경우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어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할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한국당을 배제하고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당의 태도가 미온적이어서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 모두 사실상 28일을 넘기면 미뤄놓은 의원 일정 등으로 당장 정족수에 비상이 걸리는 상황인 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심리적 마지노선인 28일을 전후해 현재의 교착 정국을 일단락짓기 위한 모종의 결단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산자위 '임종석 UAE 방문' 공방

한국당 "직접 나와 해명해야"... 與 "UAE서 오해 할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27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여야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논의보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자유한국당 윤환홍 의원은 "UAE 원전 관련해 국민의 의혹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다"며 "임 실장의 방문뿐만 아니라 계속 청와대에서 해명을 바꾸고, 또 하다 보니 국민의 의혹이 갈수록 증폭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우리가 원전에 대한 주무 상임위원회 이니 장관이 그에 대해 해명을 하든, 임 실장을 우리 상임위에 출석시켜서라도

UAE 원전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여당은 방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지금 UAE 원전의 건설과 운영 진행에 있어 문제가 있거나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느냐"며 정부에 해명 기회를 줬다. 이에 백 장관이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 자체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UAE 측에서 오히려 여러 문제 제기엔 이해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UAE가 국내 상황 때문에 잘못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외교부와 함께 특별히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한국당 '민주 패싱' 청와대 정조준

"한병도 수석과 대화 의사 있다"... 류여해 최고위원 제명

자유한국당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패싱'하고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26일 청와대 앞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27일에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냈다.

한 수석이 전날 한국당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시점에 국회를 방문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원내지도부를 만난 사실 자체가 제1야당과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수석은 의도적으로 제1야당을 패싱하면서 일도당도않은 말로 국민을 어지럽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뒀다. 그는 회의를 마친 뒤 "한 수석이 진정으로 제1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식한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한 수석을 만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한국당은 지난 26일 당무 감사 결과에 반발해 홍준표 대표를 비방하는 등 격한 발언을 쏟아낸 류여해 최고위원을 제명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靑 핵심참모들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가다

임종석·조국·윤영찬 자리 지켜... 박수현 대변인 충남지사 도전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반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청와대 참모들의 면면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선거까지는 6개월가량 남았지만 지방선거에 출마할 공직자 사퇴시한인 내년 3월 12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탓에 출마 예상자들로서는 한두 달 내에 자리를 지키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참모들은 주로 비서관급 이하다.

문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하고 있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3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안희정 지사의 뒤를 이어 충남지사 도전하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안 지사 캠프의 대변인이었던 박 대변인은 안 지사와 친분이 두터워 충청권 내 안 지사의 지지율을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변인과 함께 정무수석실의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도 충남지사 도전 여부를 막판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사이에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술밥을 먹는 박 대변인과 나 비서관이 충남지사 후 자리를 놓고 당내 경선

에서 격돌할 가능성이 있다. 제주 출신 문대립 사회혁신수석실 제도개선비서관은 제주지사 출마하기로 하고 지방선거 예비등록일인 내년 2월 13일 전 비서관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오중기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2014년에 이어 여당 불모지인 경북 도지사직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를 고민하는 행정관들도 정리가 돼가는 분위기다. 제도개선비서관실 박영순 선임행정관은 대전 지역구청장 도전이 유력하게 접쳐지고 자치분권비서관실 백두현 선임행정관은 경남 고성군수 선거에, 정무비서관실 강성권 행정관은 부산 사상구청장에, 정무수석실 김병내 행정관은 광주 남구청장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8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2
예능	음 악 학 과	5
	실용음악학과	4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 6(토) ~ 1. 9(화)
 • 전 형 일 : 2018. 1. 16(화)

편 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일반편입 (3학년)	학사편입 (3학년)	유치원교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3학년)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	○
	음 악 학 과	○		
예능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 8(월) ~ 17(수)
 • 전형일 : 2018. 1. 23(화)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 8(월) ~ 1. 17(수)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8. 1. 23(화) 오후 2시 30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대학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대학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018. 2. 6(화) 오후 2:30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	2018. 2. 6(화) 오후 2:40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2018. 2. 6(화) 오전 9:40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2018. 2. 6(화) 오후 2:4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인문학의 ▶ 학부 0621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